주요종단 총무원장 신년 기자회견

"자비와 화쟁으로 이웃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승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1월 14일 오전 10시 30분 국제회의장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연 자리에서 "승가청규로 승려법을 개정해 범계행위를 엄격 관리하고 비구니스님의 참정권을 위해 교역직 등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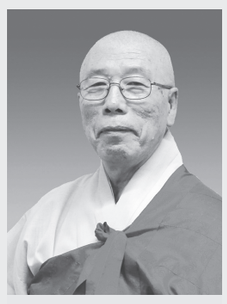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34대 집행부의 종책 과제로 "'사회와 이웃을 향한 나눔과 봉사의 불교', '지혜와 자비를 구현하는 사부대중 공동체', '불교중흥을 위한 지속적 종단 혁신'의 길을 임기 동안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계종 34대 집행부가 밝힌 주요 종책 과제는 '사회와 이웃을 향한 나눔과 봉사의 불교'의 세부안으로 1사찰 1사회시설(복지관, 어린이집 등) 운영 권장, 남북평화통일에 대비한 불교역할 강화, 불교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지원 확대, 이주민 다문화가정 지원 강화, 종교간 화합과 교류 강화, 증오범죄방지법 제정, 자비나눔 확대, 사찰림을 중심으로 한 생태적 가치 및 종교·역사 문화적 가치 확대, 문화유산 활용 강화, 무형문화재 발굴과 소개, 불교문화콘텐츠 개발 및 활용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조계종 34대 집행부는 주요 종책 과제로 '지혜와 자비를 구현하는 사부대중 공동체'의 세부안으로는 승가 청규 공식 제정 및 실천, 승려법 개정(범계행위 엄격 관리), 붓다로 살자 대중화, 생활화, 사회화 운동 전개, 법계별 교육내용 세분화, 사찰단위, 교구단위의 신도단체 활성화를 통한 사업 콘텐츠 생산 및 역량 지원, 사찰운영위원회 활성화로 모범사찰을 선정해 종단포상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불교중흥을 위한 지속적인 종단 혁신'의 세부안으로는 승가복지 공청회 및 승려복지법 개정을 통해 승가복지 전면 시행(2014년), 의료비 지원 전면 확대, 승려복지, 주지인사 교구위임, 교구인사제도 개선, 조계사 일대에 우리의 전통문화 체험 공간 조성, 역사교육관 건립 계획 현실화, 세종신도시 조계종 사찰 건립 (총무원 분소 개설, 약 3000평), 위례신도시 사찰 확보 등이 34대 집행부의 주요 종책 과제라고 밝혔다.

종도 고충처리위원회 신설, 종단 홍보강화, 태고 포교대상 제정 시행, 전국 규모 수륙재 봉행



도산 스님
태고종 총무원장

태고종(총무원장 도산스님)은 1월 22일 오후 3시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회의실에서 가진 신년기자회견에서 "2014년 추진사업으로 선암사를 성역화하고 성지순례 봉행, 정수원 부활, 단기출가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도산스님은 "선교육 후득도 원칙에 따라 동방대, 선암사 강원 사집과정 등 종단 공식인증 교육기관의 교육을 이수해야만 득도를 가능하도록 하겠다"며 "힐링 프로그램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템플스테이 지원보조금 유치확보책을 강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올해 태고종의 추진 사업계획 중 총무부는 △단기출가 프로그램 운영(선암사, 청련사 등 규모와 능력있는 사찰) △종도 고충처리위원회 신설 △태고종 발전위원회 구성 △월례 확대간부회의 정기적 개최 △종법에 따른 1시도 1교구 종무원으로 재개편 △종단 홍보강화 △전통사찰 방제시스템 구축 △템플스테이 지원보조금 유치확보책 강구 △분한 신고 마감 △윤달 삼사순례길 개발 △태고포교대상 제정 시행 △종단 사찰간판 단일·규격화 등이다.

* 교무부 사업계획으로는 △선암사 정수원 부활(출가자는 득도 전 연중 3개월 입소 원칙으로 교육 강화) △교육체계수립 △선교육 후득도 체계 확립 △종단 통일의식집 발간 착수 △전국 규모의 대승보살계 수계법회 봉행 등이다.

* 재경부 사업계획으로는 △승려 의무금 조정(안) 마련

* 문사부 사업계획으로는 △중앙신도회 재편 활성화 △태고문화축전 봉행(10월) △문화사업 봉행 △전국 규모의 수륙재 봉행(5월) △대 사회 구휼활동 강화 △해외 성지순례 실시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있는 희소자료 발굴 수집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 및 종단협 연등축제봉축행사 봉행

* 규정부 사업계획으로는 △규찰활동 강화로 승풍기강 확립 등이다.

대전 광수사에 천태전승관 건립 천태종 총무원 3년후 옮길계획



도정스님
천태종 총무원장

천태종 총무원장 도정스님은 1월 15일 서울 우면동 관문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천태종 총무원장 도정스님은 "총무원의 대전 이전은 상월조사의 말씀이다"며 "행정수도인 세종시에서 15분 거리이지만 그것 보다는 종단발전 계획을 생각해서 대전이전을 하게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정스님은 또 "이를 위해 광수사에 이미 3만평의 부지를 확보했다"며 "앞으로 구인사는 성지이며 신행도량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도정스님은 "천태전수관은 올해 설계에 착수해 3년정도 걸린다"며 "소요예산은 400억이고 자부담 200억, 지자체와 국가가 200억 지원이다"고 설명했다.

기자회견에서 도정스님은 "올해 종무방침으로 종단 내외부를 아우르는 생활불교 실천, 천태 복지플랜 2020의 기반조성, 중국 각성과 불교교류 활성화, 천태사찰총람 발간, 대조사 생애집및 설법집 발간등으로 정했다"며 "전문봉사단 활성화와 북한 개성지역 영통사와 박연폭포위 관음사 안화사등 3사 성지순례, 일요법회 활성화, 열린 문화강좌 개설, 2차 수계법회 봉행, 천태중앙 박물관 내실화를 꾀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밖에도 천태종은 올해 전국청년회 배구대회, 영산대재및 예수재 그리고 삼회향 놀이 봉행, 원각서예대전 및 사진전, 함께하는 천태복지 공모사업, 천태관음참의회 법회 봉행등의 계획을 발표했다

진각종, 미래불교를 준비한 젊은 불교 육성에 중점



회정정사
진각종 통리원장

진각종 통리원장 화정정사는 1월 15일 통리원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올해는 '미래불교를 준비하는 유소년포교 강화의 해로 삼겠다"며 "젊은 진각종 만들기 프로젝트를 멀리보고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회정 통리원장은 "초중고생 600여명이 참가하는 청소년 스키캠프와 일본 백제문화탐방 행사를 올 겨울 시하고 있다"며 "sns 교화프로그램 개발과 인터넷방송국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회정 통리원장은 "종단을 오픈 해서 젊은 사람들이 진각종 수행에 공감하고 쉽게 다가오도록 하겠다"며 "수행자체가 신나고 즐겁게 즐기도록 만들겠다"며 "이를 통해 사회성 있는 불교로 거듭 태어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회정 통리원장은 "내부적으로는 종단의 혁신과 스승들의 의식개선, 종도들의 의식개혁이 필요하다"며 "서로 배려하고 육성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교화자다운 교화자를 종도들이 따를 수 있을 때 우리의 새로운 모습을 만들고 그래야 진각종이 발전한다"고 강조했다.

회정 통리원장은 "올해 종단지표는 자주적 수행, 청년불교운동, 가족불교운동, 회향적 불교운동, 국제관등 외형적 건축불사 완공이다"며 "국제적으로도 스리랑카 jgo센터에 고등학교 과정을 개설해 교실과 교사를 확충하고, 내팔 룸비니에 jgo센터 설립, 스리랑카 법인 설립등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북사업은 여건과 환경이 개선되면 움직일 수 있도록 통일적금을 매년 예치중이다"며 "상황이 되면 적극 나서겠다는 방침이다"고 말했다.

회정 통리원장은 "진각종은 조계종 태고종 천태종 총지종등 여러종단과 합심해 불교의 힘이 집중되도록 노력할 것이다"며 "사회에 목소리 내는 불교가 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부처님 자비 광명, 어려운 이웃과 나눠요

개천사	강순시	1/14	10,000	기 로	사홍화	1/20	10,000	성화사	우담바라회	1/17	60,000
개천사	한영란	12/27	1,000,000	기 로	상지화	1/20	10,000	수인사	김봉기	12/26	10,000
개천사	이희권	12/30	10,000	기 로	수증원	1/20	10,000	수인사	무명씨	1/3	10,000
개천사	무명씨	1/15	30,000	기 로	총지화	1/20	10,000	승천사	원 봉	1/21	10,000
건화사	이연호	1/12	10,000	기 로	해 정	1/24	10,000	승천사	지선행	1/21	10,000
건화사	무명씨	1/12	50,000	단음사	법연지	1/20	10,000	시법사	선도원	1/20	10,000
관성사	황성녀	12/30	10,000	만보사	정덕순	12/26	10,000	실보사	이순옥	12/31	10,000
관성사	박현숙	1/3	10,000	밀인사	정정희	1/1	5,000	실보사	송희준	1/3	100,000
관성사	김홍조	1/15	10,000	밀인사		1/3	200,000	실보사	조순애	1/24	60,000
관성사	인 선	1/20	20,000	밀인사	무명씨	1/8	10,000	실지사	정우석	1/21	10,000
관음사	신막심	12/27	10,000	백월사	진 평	12/31	5,000	운천사	이성미	1/23	50,000
관음사	신막심	1/23	10,000	백월사	박삼순	1/17	10,000	일원어린이집			
기 로	해 정	12/27	10,000		최용기	1/1	10,000		이지민	12/26	10,000
기 로	대 관	1/20	10,000	벽룡사	무명씨	1/5	10,000		이준동	12/26	10,000
기 로	대자행	1/20	10,000	벽룡사	무명씨	1/5	10,000		하재희	12/26	30,000
기 로	밀공정	1/20	10,000	벽룡사	양정현	1/13	10,000		하미영	12/26	10,000
기 로	법수원	1/20	10,000	벽룡사	양지현	1/13	10,000		김지연	12/26	10,000
기 로	법장화	1/20	10,000	삼밀사	하명순	1/15	10,000		최복란	12/27	10,000
기 로	법지원	1/20	10,000	선립사	이순복	1/10	10,000		서선숙	12/27	10,000
기 로	불멸심	1/20	10,000	선립사	심지장	1/16	10,000		구미자	12/31	10,000

일원어린이집			
	박화진	1/23	100,000
정각사	김문수	1/13	10,000
정심사	원정언	1/17	30,000
지인사	이형자	1/13	10,000
지인사	승효제	1/21	10,000
지인사	지 성	1/21	10,000
초록어린이집			
	황화성	12/26	30,000
총지사	법 등	1/7	30,000
혜정사	지성인	12/30	20,000
혜정사	정은선	12/30	10,000
혜정사	김갑선	1/20	10,000
혜정사	최영례	1/20	10,000
화음사	강다희	12/27	5,000
화음사	강순란	1/3	20,000
흥국사	지 정	1/21	10,000

12월26일부터 1월25일까지 **후원회 가입안내**

불교 총지종 사회복지재단 후원회는 부처님의 참사랑을 주위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의 정성은 재단 복지사업에 소중히 쓰여집니다.

후원금 납부방법

1. 단체일 경우 회장님이나 담당자를 통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2. 후원금 납부는 지로 또는 아래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를 하시면 됩니다.
3. 회원번호란에 소속사원명을, 통신란에 주소를 기재해 주시면 지로용지는 후원자님 앞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 지로번호 : 7668610
- 우리은행 : 122-177171-13-104
- 예금주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

불교총지종 사회복지 재단
전화 02)552-1083, 02)3452-7485

불교의 선정 26

사념처 수행

법념처(3)-오온의 의미

중앙교육원장 철학박사 화 령

색온

색은 빨리어로 rupa라고 하는데 ruppati라는 말의 어근이다. ruppati에는 '부서진다', '가로 막는다' '견고하지 못한 것' 등의 의미가 있으며 rupa에는 '색깔이나 형태가 있는 것'의 뜻이 있다. 즉 색은 일정한 공간을 점하면서 동시에 다른 존재와 함께 하지 못하며[이것을 질애(質礙)라고도 한다], 끊임없이 변화하고 이윽고 소멸하는 성질이 있다. 한 마디로 인식의 대상이 되는 물질적인 것을 색 혹은 rupa라고 한다. 《아비달마구사론》에서는 28종의 색법을 들어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색법은 간단히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즉 사대(四大)와 이십사소조색(二十四所造色)인데 사대는 지수화풍의 사대원소를 말하며 소조색이라는 것은 사대원소로 인하여 혹은 의지하여 나타나는 색법이다. 사대원소가 예를 들어 사대가 대지라면 소조색은 대지에 의지하여 생기는 수목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사대에 의지한 소조색의 출현이 곧 우리가 보는 일체의 사물이다.

오온은 집착의 대상
오취온으로 번뇌가 시작된다.
오온의 관찰로 해탈을 이룬다.

수행자는 색의 생기(生起)와 출현을 관찰해야 하는데, 예를 들면, 우리의 육체를 볼 때 그것이 물질이며 어떠한 성질의 물질인가를 분명히 알아차려 '이것이 색법이다'라고 분명하게 보고 그것이 일어나고 멸하는 과정을 잘 통찰해야 한다. 예로 들면, 호흡은 우리가 색신이 있기 때문이며 색신은 우리가 과거에 누적하여 지은 업이 만든 것임을 알아차려야 한다. 호흡의 일어나고 멸함을 끊임없이 관찰함으로서 색법은 연속부단의 과정이며 생멸이 무상하다는 것을 통찰하는 것이 색법관찰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

수온(受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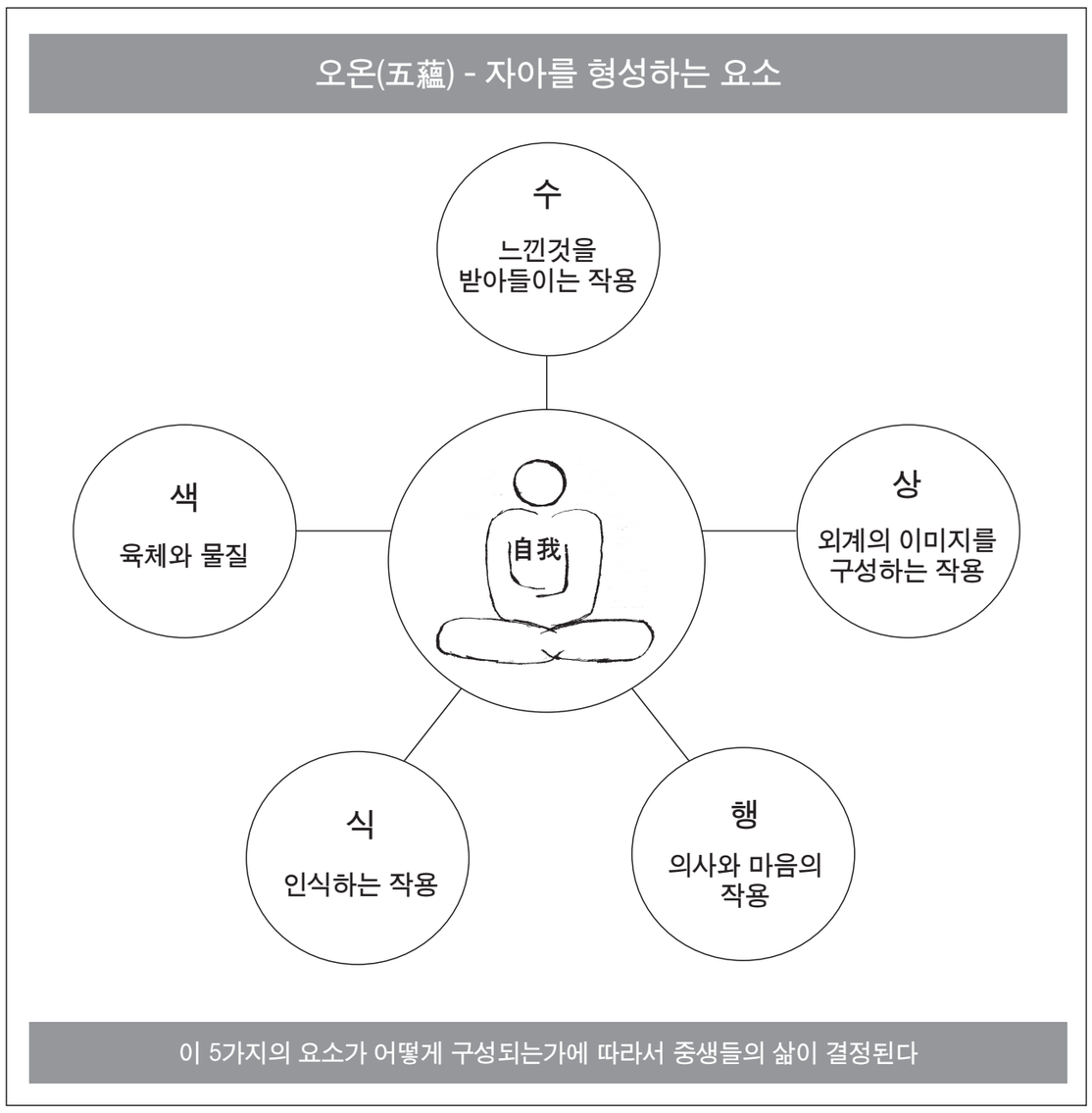
우리가 어떤 사물을 대하게되면 즐거움, 괴로움, 혹은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그저 그런 느낌이 일어난다. 예를 들어 어떤 고통이 느껴질 때 고통 그 자체는 신체적인 것이지만 고통스럽다고 느끼는 것은 심리적인 것이다. 이때에 가지게 되는 심리적인 느낌이 수온이다. 우리가 오관으로 느끼는 모든 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좋은 느낌이나 나쁜 느낌이나 처음에는 모두 해당 기관의 접촉에서 일어나는 물질적인 접촉이 있지만 그 감촉에 대한 심리적인 것이 우리의 괴로움과 즐거움 등을 만든다. 예를 들어 목욕탕에서 같은 동성 끼리 알몸으로 부딪혔을 때 기분이 썩 좋지는 않다. 그렇지만 만약 이성끼리 알몸으로 부딪혔다면 그 느낌은 아무래도 다를 것이다. 같은 피부의 접촉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무엇으로 파악했는가에 따라 그 느낌이 달라진다. 수온의 관찰은 육근의 접촉에서 일어나는 물질적이고 심리적인 전 과정을 세밀히 관찰하여 느낌이라는 것이 우리의 심리상태에 따라 변화하며 그것이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머물렀다가 사라지는가를 살피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수의 무상을 깨닫기 위한 것이 수온 관찰의 목적이다.

상온(想蘊)

상(想)은 마음에 떠오르는 개념이다. 감각과 지각에 의하여 인식작용이 일어날 때 일차적으로 마음에 떠오르는 모습이다.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는 기호나 부호처럼 어떤 모습을 떠올리는 일차적 인식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식에 의한 구체적인 판단을 하기 전에 떠오르는 이미지로 정확하기도 하고 부정확하기도 하다. 수행자는 어떤 사물과 현상에 의하여 상이 떠오르면 그것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이러한 모습이 나에게 떠오르는구나' 혹은 '이런 모습이 사라지는구나' 하고 끊임없이 상의 나타남과 사라짐을 관찰하여야 한다. 마치 영화를 보는 것처럼 상의 출몰을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상은 사라지며 그것의 일어남과 사라짐의 원인을 보게 된다.

식온(識蘊)

식온은 사식주(四識住)라고도 하는데 중생의 심식을 말한다. 이것은 색 · 수 · 상 · 행의 사온에 대하여 탐착하면서 점점 더 탐착하고 좋아하는 성질을 지녔다. 식은 나에게 느껴진 감수작용과 그것에 대한 개념을 형성하고 여기에 대해 종합적인 판단을 한다. 종합적인 판단에는 분별하고 인식하고 평가하는 모든 정신작용이 포함된다. 우리의 육식을 관찰하면 식은 너무 매우 빠르게 변화하여 마치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 식온이 바퀴의 중심부라면 식온을 제외한 다른 사온은 바퀴를 감싸고 있는 바퀴살과 같이 바쁘게 돌아가지만 바퀴의 축은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우리의 식도 사실은 순간순간 변화하지만 정작 우리는 자기의 생각이 일관되게 변하지 않는 것처럼 느낀다. 식온의 관찰은 우리의 식이 얼마나 부질없고 변화무상하며 실체가 없는 것임을 알게 한다.



오온의 관찰은 결국 오온으로 이루어진 나의 존재라는 것이 무상하다는 것을 통찰하기 위한 것이다. 경전에서는 부처님께서 이렇게 설하고 계신다.

"색은 무상하다. 무상하기 때문에 고이다. 고인 것은 내가 아니다. 내가 아닌 것은 나의 것도 아니다. 이렇게 관찰하는 것을 진실하고 바른 관찰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수 · 상 · 행 · 식도 무상하다."

이처럼 오온의 관찰을 통하여 오온의 무상함을 깨닫고 고의 실상을 알 수 있다. 오온이 무상하고 고이며 무아라는 것을 바르게 관찰함에 의하여 오온을 싫어하고 오온에 대한 탐욕을 떠나서 깨달음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생활불교에 대한 사상적 배경과 실천방향을 제시한 책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지향하는 현대인의 필독서



승속을 초월한
살아있는 불교를 위하여

생활불교
재가불교

"살아 있는 불교는
생활 가운데에서 깨달음이 얻어지고
생활 가운데에서 실천되어야 한다"

화령 저 | 불교총지종 발행
정가 10,000원 | 법보시가 6,000원 (10권 이상)

법보시 받습니다. 법보시가 (6,000원 / 10권 이상) 문의전화 02-508-8933

통신원 편지

참회 그리고 참회 기도법

정리 및 편집 /종보 편집위원 이인성



▲ 청담대종사

1965년 여름, 30대 부인 두 사람이 청담 스님을 찾아왔습니다. 한사람은 도선사 신도이고, 다른 한사람은 한 눈에 보아도 중환자임을 알아볼 수 있을 만큼 모습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힘없는 음성으로 스님께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이화여대 영문과를 졸업하고 결혼을 하여 남매까지 둔 부유한 가정의 주부입니다. 그동안은 참으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2년전 발견된 자궁암은 말기에 이르러 아래로는 피와 고름을 흘리는 데다, 폐병 3기까지 겹쳐 위로는 각혈까지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심한 위장병으로 음식도 제대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이름 있는 병원을 모두 찾아다니며 입원도 하고 약도 숱하게 복용했지만 효과가 없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체념하고 죽을 날 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친구가 찾아와 「삼각산 도선사에 참회도량이 있으니 그곳에서 기도하면 뭐든지 성취 된다.」 고 하기에 혹시나 하는 희망을 갖고 찾아 왔습니다. 스님 저를 이끌어 주십시요"하였다.

불교의 불자도 모르는 문외한인 이여인에게 청담 스님은 생사윤회와 인과응보의 법칙, 일체유심조(一切有心造)의 법문을 몇 시간에 걸쳐 자상하게 일러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불교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자 청담 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중생의 생사고락은 내 마음의 조작입니다. 콩을 심어 콩이 나고 팥을 심어 팥이 나는 것과 같이, 인(因)의 뒤에는 반드시 과(果)가 따릅니다. 모두가 한 마음을 잘못 써 그릇된 씨앗을 심은 결과로 고통을 받을 뿐입니다. 현재 부인이 받고 있는 고통을 타인에게 주려 하지 말고 무조건 참회 하십시오. 참회만이 그릇된 업을 녹일 수 있습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병든 여인은 스님께 "스님 어떻게 참회하면 됩니까?" 묻자 "하루 3천배 씩, 7일 동안 절을 하십시오. 엎드릴 때는 '부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일어날 때는 '부처님! 큰 마음을 일체 만물을 평등하게 아끼고 사랑하는 몸이 될지어다.' 하십시오. 할 수 있겠습니까?"하고 말씀하신다.

청담 스님께서는 그녀의 병이 이기적인 삶의 결과 라는 것을 꿰뚫어 보시고, 「병이 낮게 해 주십시오 가 아니라 일체만물을 평등하게 아끼고 사랑하는 몸이 되어지이다.」 하는 원을 잘 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 날부터 그녀는 하루 열 번의 절도 못할 몸으로 하루 3천배 씩의 7일간 참회 기도를 지성껏 하였고, 그 결과 불치의 병이 말끔이 낮는 기적을 이루었다. 이 이야기에서처럼 특별한 경우에는 특별한 각오로 참회 기도를 하여야하고, 절의 횟수 또한 보통때와는 달리 해야 합니다.

"어차피 죽을 몸이라면 부처님 앞에서 참회를 하다가 목숨을 마치리라. 당장의 노력으로 어쩔 수 없는 현실. 절을 하면서 모든 것을 부처님께 맡기자." 이렇게 마지막 각오를 가지고 참회를 해 보십시오. 보이지 않던 길이 보이고, 막혀 있던 것이 뚫리게 됩니다.

성도합시다.

(출처:참회, 참회기도법/김현준 지음. 도서출판 효림)

전시 공연

한국의 도교문화 · 행복으로가는길

국립중앙박물관/2014년 3월 2일까지

국립중앙박물관(관장 김영나)은 오는 2014년 3월 2일(일)까지 국립중앙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기획특별전 "한국의 도교문화 · 행복으로 가는 길"을 개최한다.

국립중앙박물관은 그동안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국민적 자부심과 민족적 정체성을 일깨우는 전시들을 꾸준히 개최해 온 바 있다. 이번 전시는 유교 · 불교와 함께 삼교三敎로 일컬어질 만큼 우리 문화의 근간을 이루었고, 지금까지도 세시풍속과 신앙, 예술, 대중문화, 그리고 건강 수련 등 우리 생활 각 분야에 그 맥이 이어지고 있는 도교 문화를 되돌아봄으로써, 한국 정신문화의 다양성과 풍부함을 확인하고 이를 널리 알리기 위해 기획되었다.

이번 전시는 특히 한국의 도교문화 전반을 종합적으로 살핀 대규모 전시로서는 최초라 할 수 있다. 그러한 만큼 출품된 유물들도 국보 6건 7점, 보물 3건 4점을 포함하여 고대에서 조선시대에 이르는 회화와 공예품, 전적류, 민속품, 그리고 각종 고고발굴품 등 300여 건에 이르는 다양한 장르의 유물들이 망라되어 있다.

전시의 구성은 크게 1부 '도교의 신神과 의례儀禮', 2부 '불로불사不老不死', 3부 '수복강녕壽福康寧'으로 이루어져 있다. 1부 '도교의 신과 의례'에서는 〈신이 된 노자〉, 〈하늘, 땅, 물의 신〉, 〈나라에서 지내는 도교 제사〉 등의 주제를 통해 여러 종류의 신들을 향한 한국인들의 염원이 어떻게 표현되었는지를 볼 수 있다.

2부 '불로불사'에서는 〈신선의 세계, 동천복지〉, 〈신선세계를 꿈꾸다〉, 〈신선이 되는 법〉 등의 주제로 도교적 이상향과 신선세계에 대한 동경, 신선 되는 방법 등을 알아본다.

마지막 3부 '수복강녕'에서는 〈함께 하는 도교〉, 〈복을 바라다〉, 〈민간신앙과 도교〉 등의 주제 하에 다양한 종교사상과 소통 · 공존한 도교문화의 모습과, 회화와 공예품 등 일상 속의 유물들에 남은 도교적 기복祈福의 자취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잘 알려진 명품이지만 평소 박물관에서조차 쉽게 만나보기 어려운 유물들을 만날 수 있다.

그 동안 부여에 가서야 볼 수 있었던 백제금동대향로(국보 제287호, 국립부여박물관)가 국립중앙박물관 역사상 최장 기간 전시될 예정이어서, 서울과 수도권에서도 백제문화의 정수를 직접 감상할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가 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신선도의 최고 걸작으로 꼽히는 김홍도필 군선도(국보 제139호, 삼성미술관 리움)도 관람객들을 눈을 즐겁게 해 줄 것이다.

도교는 여러 얼굴의 종교이다. 도교 속에 포함된 종교사상적 요소도 매우 다양하지만, 그 종교 생활의 형태도 외관상 이중적인 면이 있다. 한편으로는 육체적 · 정신적으로 매우 힘든 수련과정을 요구하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온갖 신들에게 제사를 올리며 갖가지 세속적인 복을 비는 것도 도교인 것이다. 그러나 이런 여러 얼굴의 도교이지만 그 궁극의 목표는 불로장생과 재물 획득, 질병치료와 같은 현세적 행복의 성취이다.

이번 전시는 그런 행복을 향한 한국인들의 여정에서 도교가 종교로서가 아닌 문화로서 어떻게 취사선택되었는지를 살펴보는 자리가 될 것이다.

취재,편집=편집위원회

불자생활법률

아파트 상가번영회의 상가관리규약상 '업종제한규정' 의 효력

불자변호사 하동길 변호사의 생활법률이 시작됩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법률문제를 매월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풀어갑니다.



저는 김씨 소유인 아파트단지 내 아동복상가를 미용실로 변경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임차하려는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상가번영회에서는 상가관리규약상 '분양 당시 정해진 업종을 운영하고 그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업종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선점한 동일업종 운영자의 동의를 얻은 다음 상가운영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점포의 인수인계시에도 인수자는 전임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업종제한규정이 있고, 이미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제가 미용실을 운영한다면 영업금지가처분을 신청하겠다고 합니다. 상가번영회에 가입하여 관리비 등을 납부한 자는 김씨가 아니며 소유자는 번영회에 가입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상가관리규약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저에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자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누구의 주장이 옳은지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은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는 전원으로써 건물 및 그 대지와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을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분소유자는 건물과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구분소유자 상호간의 사항 중 위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약으로써 정할 수 있고(같은 법 제28조 제1항), 위 법 또는 규약의 의하여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정한 사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서면에 의한 합의가 있는 때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같은 법 제41조 제1항)

또한 의결권은 서면 또는 대리인에 의하여 행사할 수 있고(같은 법 제38조 제2항), 위 법 제41조 제1항의 서면에 의한 결의 역시 대리인에 의하더라도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러한 결의에 의하여 설정된 규약은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 및 점유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같은 법 제42조 제1항, 제2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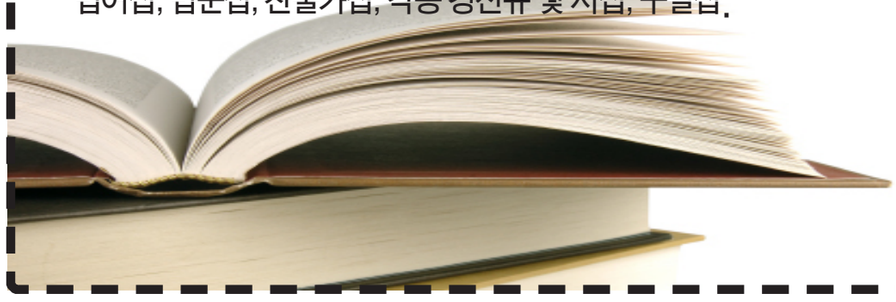
판례는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소정의 관리단은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는 건물이 있는 경우 당연히 그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되는 단체라 할 것이고(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3다45496판결), 구분소유자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로서 집합건물의 소유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면 그 존립형식이나 명칭에 불구하고 관리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구분소유자와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로 구성된 단체라 하더라도 구분소유자만으로 구성된 관리단의 성격을 겸유할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2다45284판결),

"상가번영회가 비록 그 구성원에 구분소유자 아닌 세입자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구분소유자만으로 구성되는 관리단으로서의 성격을 겸유할 수도 있고, 상가번영회의 상가관리규약을 제정함에 있어서도 점포당 1명씩만이 결의에 참여하였다면 세입자가 구분소유자를 대리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였거나 서면에 의한 결의를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으며, 그러한 경우 그 상가관리규약은 관리단규약으로서의 효력을 갖게 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8. 23.선고 94다27199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도 상가번영회가 위 판례에서 설시하는 것처럼 운영된다면 상가번영회는 관리단으로서의 성격을 겸유하고 상가관리규약은 관리단규약으로서의 효력을 갖게 될 것이므로, 그 규약상 업종제한규정은 비록 김씨가 위 상가번영회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김씨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음이 좋을 듯합니다.

인터넷 TV 우리불교 WTV
"촬영 합니다"
촬영영상은 우리불교신문 W-TV(wooribulgyo.com) 및 daum.net(다음) 포털사이트에서
평생 보실수 있습니다.
*원하실 경우 CD · DVD로 염가제작해 드립니다


순천 선암사 주지 진산식을 촬영한 후 본사가 제작해 납품한 CD및 DVD 모습
(02) 735-2240 / 010-2714-5831

www.mindplusbook.com
생각더하기
TEL 02-735-2240
1. 기획, 분담, 자비, 인쇄, 출판 등
출판의 모든 형태를 수준있는 편집인들과 디자이너들이 각 분야에서 성심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2. 수준있는 대필 · 윤문작가 보유
3. 법보시용 서적 제작
법어집, 법문집, 찬불가집, 각종 경전류 및 시집, 수필집.


영화에서 불교보기 〈32〉

승과 속의 갈림길에서 … 승려의 길 찾기
정지영 감독의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우리나라 불교 영화에서 주로 많이 다루는 주제는 '승려의 길 찾기'입니다. 수행을 꼭 산중에서 해야 하는가, 세속에서 욕망과 부딪치면서 얻어가는 것들이 있지 않는가, 이런 양 극단의 갈림길에서 방황하는 수행자들을 그리고 있으며, 또한 다른 방식의 수행을 통해 얻어진 결과를 비교하는 형태로 영화가 구성된다고 봅니다.

임권택 감독의 〈만다라〉나 〈아제아제 바라아제〉 속 주인공들은 세속의 길과 수행자의 길 사이에서 방황하지만 결국은 선택을 하는데, 〈만다라〉에서는 승가 쪽에, 〈아제아제 바라아제〉에서는 세속에서의 수행에 후한 점수를 주는 편입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잘 만든 불교영화라고 생각하는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에서는 한 사람은 절에 남고 또 한 사람은 세속을 향해서 떠났는데, 결국은 세속이든 산중이든 불성이 있는 곳이 수행처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이번에 다루는 영화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한국, 1991)도 이 범주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 영화는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스님들의 길 찾기가 주 골격입니다. 수행자로서 여법하게 살아갈 것인가, 세속으로 가서 모진 풍파를 겪으면서 그 가운데서 깨달음을 구할 것인가, 두 가지 길 위에서 방황하던 수행자들은 마침내 길을 정하고 각자의 길로 떠나는 모습이 그려지는 게 대략적 줄거리입니다.

이 영화의 장점은, 세속을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세속을 승과 마찬가지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의 세계로 인식한다는 게 기존 불교영화와의 차이점입니다. 〈만다라〉나 〈꿈〉과 같은 영화에서 보이는 세속은 승려에게는 마구니와 같은 것으로 그려졌습니다. 청정비구라면 꿈에서라도 한 발을 빠뜨려서는 안 되는 그야말로 오탁악세인데 반해 이 영화에서 보여주는 세속은 나름 긍정적인 편입니다.

영화〈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에서 무불스님은 파계승입니다. 비승비속의 인물로 머리는 길렀고, 술병을 끼고 살고, 음담패설도 거침없이 하고, 승려들의 필수항목인 계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사는 인물입니다. 삶의 공간 또한 절 보다는 저잣거리고요.

저잣거리에서 그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묘사는 없으나 오랜만에 절에 나타난 그는 결코 막사는 '땡초'만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경지에 대해서는 조실스님이 인정해주었습니다. 무불스님은 조실스님과의 문답에서도 결코 밀리지 않았으며, 조실스님이 큰 절에서 마지막 법문을 할 때 조실스님의 질문에 어느 누구도 대답하지 못하고 있을 때 그가 오직 나서서 거침없는 대답을 쏟아놓습니다.

"내가 갈 곳을 아시는 분은 일러 주십시오?"라고 조실스님이 대중에게 물었을 때, 무불 스님은, "내 갈 곳도 모르는 데 스님 갈 곳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면서 뭔가 아는 것 같은 답을 내놓습니다. 그러자 조실스님은 아무 말씀도 못 하셨는데, 이 장면만 보면 감독은 조실스님보다 무불스님을 한 수 위로 표현하고자 한 것처럼 보입니다.

무불스님은 땡초의 모습으로 살아왔지만 나름의 경지를 획득했습니다. 절에서 쫓겨나 동굴에서 살 때 그는 죽은 까마귀 고기를 야만스럽게 뜯어먹습니다. 이 모습에서 분별과 경계를 초월한 경지가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는 낭떠러지에서 스스로 몸을 던져 죽습니다. 속되게 표현하면 '자살'이지만 이렇게만 표현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조실스님이 자신이 언제 죽을지를 알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무불 스님 또한 자신이 가야 할 때를 알고 있으며, 그 마지막 순간에 그만의 파격적인 퍼포먼스를 했다는 게 더 옳은 해석일 것 같습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를 초월한 이의 마지막 퍼포먼스와 같은 인상을 주는 죽음이었지, 결코 삶에 절망한 이의 저항은 아니었습니다.

무불스님이 세속의 삶에서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했다면, 조실스님은 수행자로서의 삶의 전형을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무불스님의 반대편에 있는 인물로 그는 평생을 산중에서 욕망을 절제하면서 계를 지키면서 청정비구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조실스님은 입적에 들면서 방황하는 제자들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산내 암자에 사는 묘혼이라는 비구니의 나신(裸身)을 보고 싶다고 말합니다. 이를 두고 어떤 스님은 '평생 비구로 살아오면서 그 욕망 하나가 아직 남았는가 보다'라고 황진이의 유혹에 넘어간 지족선사처럼 생각하는 이도 있었지만 조실스님은 묘혼스님의 나신을 보면서 '무불당'이라고 말하고 앉아서 입적에 들었습니다. 몸에는 불성이 없으니 몸뚱이에 끌려 다녀서는 안 된다는 가르침을 주기 위해 평생 지켜온 청정비구로서의 이미지도 과감하게 벌릴 수 있는 조실스님은 자비심과 더불어 어떤 것에도 걸리지 않는 자유를 획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스승들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도달해야 할 경지와 방법을 보여줬다면 이제 제자들은 자신은 도대체 어느 길로 갈 것인가, 하는 길 찾기가 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무불스님처럼 세속의 길을 걸을 것인가, 조실스님처럼 산중에서 계를 지키고 욕망을 억제하면서 깨달음을 구할 것인가, 선택은 제자들의 몫입니다.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의 배경이 되는 비구 절과 비구니 절은 꽤 가까운 거리에 있고, 또 두 절 사이에는 왕래도 잦아 누군가 아프면 서로 걱정해줄 정도로 가깝게 지내는 사이입니다. 비구 절에는 '침해'라는 미소년에 가까운 사미승이 있고, 비구니 절에는 묘혼이라는 누구나 한 번쯤 돌아볼 만큼의 미모를 소유한 비구니가 살고 있습니다.

선남선녀인 두 스님은 어느새 사랑에 빠지고, 서로를 그리워합니다. 수행자로서의 본분을 잊어버릴 정도로 상대에게 몰두하게 됩니다. 영화에서 가장 공을 들였으며, 또한 가장 잘된 묘사가 이 두 스님이 서로를 그리워하면서 상대방의 절 앞을 서성거린다거나 서로를 만나기 위해 애쓰는 장면입니다. 계를 파한 스님들의 모습이 아니라 처음 사랑에 빠진 사람들의 설렘을 잘 표현했습니다. 둘은 마침내 함께 도망가자고 하면서 사람들 몰래 산을 내려왔으나 눈 덮인 산에서 헤매기만 하다가 다시 자신들의 절로 돌아갈 정도로 사랑의 감정이 매우 진지했습니다.

사랑의 감정을 표현할 때 계율의 잣대가 끼어들지 않은 게 좋았다고 봅니다. 비록 스님이긴 했지만 이제 19살인 어린 사미승이고, 그가 그 감정에 몰두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 영화의 사랑은 하얀 설경처럼 깨끗하고 순수했는데, 그게 이 영화의 장점이기도 했지만 또한 단점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스승의 마지막 설법을 듣고 그들은 어떻게든 이 감정을 정리해야 하는, 결과가 비극으로 끝날 게 뻔한 사랑인데 너무 아름답게 묘사됐기 때문에 다음 얘기와 매끄럽게 연결이 될 수 없다는 게 단점이었습니다.

조실스님은 이 둘의 관계와 감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해 돌아가시면서 묘혼의 나신을 보겠다고 하셨고, 몸뚱이에는 자성이 없다는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묘혼스님은 조실스님 앞에서 옷을 벗은 일이 꽤 충격이었는지, 아니면 스님의 '무불당'이라는 활구에 충격을 받은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사건 후 들떴던 감정을 정리합니다. 자신의 손가락 하나를 잘라내는 의지를





보이면서 수행자의 진지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묘혼스님은 산중에서 수행자로서 살아가는 삶인 조실스님의 길을 걸을 것으로 정리된 것입니다.

반면에 침해 스님은 묘혼스님과는 다른 길을 걷기로 합니다. 무불스님처럼 세속을 만행하면서 깨달음을 구하기로 합니다. 욕망을 억제하는 길이 아닌, 경험하고, 속성을 이해하고, 그리고 헛됨을 깨달으면서 자유로워지는 길을 걸으려고 합니다. 바랑을 짊어진 침해스님 뒤로 기차가 지나가는지 기적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는데, 이것이 이런 정황을 설명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침해스님이 세속 행을 결정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갑작스런 결론은 좀 느닷없게 여겨지는 점이 있습니다. 세속의 길을 가게 되는 동기가 불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침해스님의 느닷없는 세속 행이 영화의 구멍이 되고 있습니다. 이 뚜렷한 단점 때문에 영화는 기대에 못 미치는 편이었습니다. 원작은 고은이고, 감독은 우리나라 최고 감독 반열에 드는 정지영 감독인데 반해 뭔가 싱겁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좋은 불교영화라고 말하기는 좀 망설여집니다.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에서 보여준 것처럼 세속의 길을 갈 것인가, 산중에서 수행할 것인가, 양단의 갈림길에서 방황하는 수행자를 표현하는 것은 우리나라 불교영화만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영화의 원작자가 주로 환속한 사람이었다는 게 이런 경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고은작가나 〈만다라〉를 쓴 김성동 작가나 다들 환속하신 분들로 당연히 수행방법에 대한 모색을 했을 것이고, 자기 합리화의 과정을 밟았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탄생한 소설이 바탕이 되다보니 어느새 이런 형태의 영화들이 우리나라 불교영화로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현재 수행자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에 의해 쓰여 졌다면 아마도 다른 종류의 영화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새로운 종류의 영화에 대한 기대도 가져봅니다.

김은주 〈자유기고가〉

가족의 마음으로 어려운 법률문제를 해결해드립니다.
변호사 하동길
종합법률사무소
상담전화
02.596.4600
부동산, 세무,
형사, 민사, 가사,
특허 전문, 개인회생,
파산 특별 상담
※ 총지종 교도 특별 상담
변호사 하동길 종합법률사무소 서울시 서초구 1715-3 동구빌딩 201호

치아교정
심미보철
임플란트
치아미백
사랑니발치
스케일링
잇몸치료
충치치료
불교총지종 교우들에 한해
10~20% 할인
림플란트치과
LIMPLANT DENTAL CLINIC
원장 임경민
미국 보스톤대학교 임플란트학과 연수
서울대학교 치의학 대학원 수료(임플란트과정)
▶진료시간
평 일 AM 09:00 ~ PM 06:00
토 요 일 AM 09:00 ~ PM 01:00
점심시간 PM 01:00 ~ PM 02:00
공 휴 일 휴 진
▶상담전화
02.967.2228
림플란트치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1132 경동 유니온빌딩 6층



불교의 생활화·생활의 불교화를
실천하는 불교총지종.
진언밀교 총지도량에서
즉신성불의 대도를 이루시길 서원합니다.

불교총지종

새로운 모습으로
교도님들과 전국의 불자들에게 다가갑니다.

원정대성사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정통밀교의 홍포를 위해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지난 한 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교도님가정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충만하시기를 서원합니다.

총지종보 편집위원회 합장
전국 통신원 일동

불교총지종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2동 776-2 (우) 135-928 Tel: 02.552.1080~3 Fax: 02.552.1082

불교총지종
총지종은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통해 참 대승의 정신을 구현하는 생활불교 종단입니다.

총지종보

총기 43년
2014년 2월 5일
음력 1월 6일
월 간 발 행
www.chongji.or.kr

창간년도 총기24(1995)년 10월 16일 등록번호 마 2360호 발행인 : 법등(구창회) The chongji news 구독문의 02-552-1080 불기 2558년 제171호

종조 탄신 107주년 기념 종령법어



오늘은 정통밀교의 대광명을 이 땅에 드리우고 즉신성불과 불국정토의 대원을 이루고자 우리 총지종을 창종하신 원정대성사께서 탄신하신지 107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원정대성사께서는 6.25사변으로 동족끼리 서로 죽고 죽이는 처절한 전쟁의 참혹함과 도탄에 빠진 중생들의 고통을 목격하시고, 호국불교를 통해 나라를 구하고 중생을 구제해야겠다는 대자대비의 서원으로 조선시대 억불정책으로 사라진 밀교의 비법과 경궤, 그리고 다라니와 수법 등을 발굴하시어 정통밀교를 통한 구국도생의 대원을 세우셨습니다.

원정대성사께서는 구국도생과 밀엄국토 건설에 대한 대원으로 해방과 6.25동란 이후 어려워진 나라 살림과 고통에 허덕이는 중생들을 살피시고 오로지 호국불교, 정통밀교를 통한 가르침과 수행만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확신하시고 정연한 교상과 사상을 갖춘 정통밀교 종단을 창종하셨습니다.

원정대성사께서는 창종과 동시에 국태민안과 조국평화통일의 염원으로 '나라를 위한 불공'을 제정하시어 상,하반기 49일 불공기간동안 진행하는 '진호국가 불공법'을 공포하셨습니다.

우리는 원정종조님의 유훈을 받들어 중생구제와 불국정토의 건설 그리고 조국평화통일의 대원을 이루는 길은 오직 삼밀관행, 진언염송으로 종지를 굳게 세워 흔들림 없이 정진하는 길 밖에 없습니다.

오늘 원정대성사님의 탄신일을 맞이하여 우리 총지종의 모든 교도들은 종조님께서 열어 놓으신 훌륭한 법문과 수승한 밀법의 진리에 의지하여 변함없는 신심으로 조국평화통일과 밀엄국토의 대원을 이루는 길은 오직 삼밀관행, 진언염송으로 종지를 굳게 세워 흔들림 없이 정진하는 길 밖에 없습니다.

아울러 비로자나부처님의 가지력으로 우리 총지종이 길이 융창하게 하여주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무한한 복덕이 깃들기를 서원합니다.

성도합시다.

옴마니반메훔. 옴마니반메훔. 옴마니반메훔.

총기 43년 1월 29일
불교총지종 종령 효강 합장

원정 대성사의 입교 개종의 정신을 이어 받아 정통 밀교의 새로운 장을 세우자.

1월 29일 전국 사원에서 제107주년 원정대성사 탄신대재 봉행

▲ 고유문을 낭독하는 효강 종령 예하

불교총지종 종조 원정 대성사 제107주년 탄신대재가 1월29일 원정기념관과 전국의 사원에서 일제히 봉행되었다. 효강 종령 예하를 모시고 서울 경인교구 스승과 교도, 유가족 대표 등 약 200여명이 참석한 이날 법회는 개식사에 이어 스승 및 교도들의 헌화와 훈향 정공이 있었다. 효강 종령 예하는 법어를 통해 "원정대성사께서는 창종과 동시에 국태민안과 조국평화통일의 염원으로 '나라를 위한 불공'을 제정하시어 상,하반기 49일 불공기간동안 진행하는 '진호국가 불공법'을 공포하셨습니다. 우리는 원정종조님의 유훈을 받들어 중생구제와 불국정토의 건설 그리고 조국평화통일의 대원을 이루는 길은 오직 삼밀관행, 진언염송으로 종지를 굳게 세워 흔들림 없이 정진하는 길 밖에 없습니다. 오늘 원정대성사님의 탄신일을 맞이하여 우리 총지종의 모든 교도들은 종조님께서 열어 놓으신 훌륭한 법문과 수승한 밀법의 진리에 의지하여 변함없는 신심으로 조국평화통일과 밀엄국토의 대원을 이룩하고 나아가 전 인류가 진언밀법으로 하나되어 행복해질 수 있도록 정진해 나아갑시다."며 원정대성사의 탄신으로 정통밀교를 이 땅에 세우고 나라와 중생을 위해 세운 큰 뜻을 찬탄했다.

법등 통리원장은 봉행사에서 "밀법홍포의 대원을 저희 제자들에게 부촉(咐囑)하시며 세연을 다하고 입적하신지 사반세기가 지나 지금 이렇게 종조탄신 법회를 봉행함에 있어 돌이켜 생각해보니 원정 대성사님의 큰 뜻을 저희 제자들이 십분의 일도 따르지 못한 것 같아 부끄러운 마음 감출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원정 대성사님의 대원을 다시 한 번 되새기고, 종단은 종조님의 사상과 교상의 연구에 매진하여 종조님께서 제창하신 재생의세의 정신으로 세계 속에 우뚝 선 총지종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용맹정진할 것을 다짐합니다. 종조님께서도 저희들을 광명의 빛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지심으로 발원하옵니다."며 종조님의 대원을 되새겼다.

김은숙 서울 · 경인 신정회장은 "복지구족하신 부처님과 대비원력 깊으신 종조님께서 다툼과 미움, 시름과 절망으로 어두워진 이 미망의 사바에 하루 속히 비로자나 부처님의 영원한 진리와 깨달음의 빛을 밝혀 주옵소서" 며 종조님 전에 발원하였다.

서울 · 경인 마니 합창단의 축가를 끝으로 제107주년 원정 대성사 탄신대재를 마쳤다. 법회 후에는 효강 종령예하를 비롯하여 동참한 스승 교도들은 원정기념관에 전시된 종조님의 유품들을 관람하며 평소 검소한 생활과 수행정진에 한 치의 물러섬이 없던 모습을 되새겼다.

원정기념관=김종열 기자

부처님의 참뜻을 이어받아 진언 밀법으로 즉신성불의 대도를 이루자

총기 43년 신년하례법회 / 1월17일 총본산 총지사에서 300여명 동참



▲ 총기 43년 신년하례법회

총기43년 갑오년 신년하례법회가 1월17일 오후 1시 총본산 서울 총지사에서 열렸다. 이날 법회는 효강 종령예하를 모시고 법등 통리원장과 종단 집행부를 비롯한 각 사원의 주교, 기로스승 및 교도들이 동참 했다. 인선 총무부장의 집공으로 열린 법회는 원정기념관 참배를 시작으로 종령 예하의 헌화, 승단 하례, 교도일동 하례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효강 종령 예하는 법어에서 "부처님의 동체대비 사상은 모든 중생이 한 뿌리에서 태어나, 각자의 만다라 세상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나와 중생과 부처가 하나라는 삼평등의 진리를 가슴에 새기고, 자신이 가진 재물, 지식, 법, 염송공덕을 모두에게 베푸는 한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든 중생을 대할 때, 부처님 대하 듯 하면 미움과 원망은 사라지고, 번뇌의 사슬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또한 올해는 12간지 중 말의 해입니다. 말은 단단한 근육으로 무한의 질주 본능을 가진 동물입니다. 밀교에서는 용맹정진의 상징으로 마두관음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우리도 말이 초원을 질주하듯 힘찬 기운으로 용맹정진하여 즉신성불의 대도를 이루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며 갑오년 새해 다짐을 설했다.

법등 통리원장은 "새해 불공을 용맹 정진으로 마치신 스승과 교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갑오년에도 서원하신 모든 계획들이 원만히 이루어지시기를 서원합니다."며 인사말을 했다.

◆기로스승 진원식

신년하례법회 후에는 기로스승 진원식이 이어졌다. 이번에 기로스승으로 진원된 수인사 지회심 전수, 성화사 지광 정사, 수인사 지공 정사, 단향사 경원 정사 는 효강 총령예하에게 가사를 반납하고, 새로이 기로가사를 수여 받았다. 효강 종령 예하는 법어를 통해 " 그동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종조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수행정진과 교화에 매진하신 스승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새로 진원한 기로 스승님들을 치하했다

총기43년 기로 진원 스승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회심 전수

1996. 5.13 밀행사 주교
1997. 10. 1 항마급 (대인사) 품수
2003. 12.20 수인사 근무
2012. 10. 1 출세간위(지수) 품수
2014. 1. 1 기로스승에 명함.



지광정사

2001. 5.22 제8대 중앙종의회 의원 당선
2004. 4.14 대구 · 경북 교구 교구장
2006.12.20 성화사 주교를 명함
2006. 4. 1 청정지(정사) 품수
2009. 5. 1 부산.경남 교구장
2014. 1. 1 기로스승에 명함



지공정사

2000. 12. 14 밀행사 주교
2003. 12. 20 수인사 주교 명
2006. 4. 1 청정지(정사) 품수
2010. 1. 30 대구.경북 교구장
2012. 2. 28 사감원 부원장에 명함.
2014. 1. 1 기로스승에 명함.



경원정사

2002. 8. 1 정각사 주교에 명
2005. 1.14 개천사 주교를 명함
2006. 4. 1 청정지(정사) 품수
2006. 5. 1 사감위원에 명함
2007. 2.13 총무부장에 명함
2010. 1. 30 단향사 주교에 명함
2014. 1. 1 기로스승 임명

새로운 종풍운동

첫째, 뼈를 깎는 듯한 철두철미한 수행으로 용맹정진하며 전신적(全身的)인 삼밀 관행을 실천해 나갑시다.

둘째, 정재(淨財)는 부처님 재산입니다. 소중하게 생각하며 관리를 철저히 합시다.

셋째, 즐거운 마음으로 수순(隨順)합시다.

넷째, 생활불교를 실천하고 널리 홍포 (弘布)합시다.

다섯째, 중생제도에 열과 성을 다하며 신명(身命)을 바치도록 합시다.

생활의 불교화 · 불교의 생활화
卽身成佛의 大道 불교총지종

상반기 49일 불공

| 일 시 | 총기 43년 2월 19일 ~ 4월 8일
| 장 소 | 총지종 각 사원
| 대 상 | 총지종 교도 및 모든 불자

모든 중생은 불성을 지닌 부처님이십니다.
부처님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허물을 참회하고,
조상으로부터 쌓아 온 업장을 소멸하는 지극한 불공을 해야 합니다.
모든 불자님들께서는 전생의 업장을 소멸해 해탈을 이루시고,
항상 마음자리를 살펴 청정한 부처님이 되도록 수행정진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반기 49일 불공정진으로
모든 마장을 예방하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서원드립니다.

불교총지종 통리원

불교총지종 법등 통리원장 신년 기자간담회

괴산수련원 종조전 및 교도복지시설 건립 주력



불교총지종 통리원장 법등 정사는 1월 24일 통리원 반야실에서 불교계 신문, 방송, 인터넷 뉴스 기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발표된 주요 사업계획과 종단 운영 방안을 문답형식으로 정리하였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총지종의 올해 예산은 어느 정도 책정 하셨습니까?

♣ 불교 총지종은 총기 43년 새해 예산을 총 86억 4천 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이 예산은 전당 건설, 복지 사업부문, 교화 및 교육 사업부문, 문화 사업부문, 어린이. 청소년 부문, 종합 힐링 센터 운영부문 등에 사용 될 예정입니다.

괴산 수련원 공사 진행 현황에 대해 말씀해주시지요?

♣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괴산 수련원은 서원당 주교사택, 숙소, 공양간이 거의 완공단계에 와 있습니다. 곧 준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또한 올해는 종조전 및 종조사리탑 건립불사를 추진합니다. 이로서 괴산은 총지종의 종합 수행 정진 도량과 종조전을 모신 법계도량으로 건설 될 예정입니다.

기자 여러분들이 오늘 들어오면서 보신대로 총지사 외부 정비와 공양간을 신축 중입니다. 또한 통리원에 근무하는 종무원 사택이 노후하여 이를 새로 건축할 예정입니다.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올해 안에 착공 할 것입니다.

사회 복지부문의 갑오년 사업 계획은 어떤 것이고, 중점 방향은 무엇인지요?

♣ 총지종은 정부의 복지정책에 최대한 부합하는 복지 불사를 전개 할 것입니다. 현재 청소년 방과 후 공부방 프로그램 및 어린이 집, 노인 요양시설 등을 운영 중입니다.

총지종은 올해 가장 역점을 두는 사업으로 신도 복지 불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지종의 교도는 종단에서 끝까지 보살핀다는 원칙으로, 노인 요양 시설을 건립하여 편안한 시설에서 진언염송의 신행과 복지를 함께 누리는 사업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교도복지시설을 서울 · 경인 지역에는 성남에, 부산 · 경남 지역은 부산에 각 1개씩 건설 될 예정입니다.

이 시설은 연세가 많은 교도들 중 종단의 보살핌이 필요한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지원됩니다. 이 분들에게 숙식과 신행생활을 보장함으로 행복하고 편안한 노후 생활을 영위하게 하고자는 목적입니다. 또한 사회복지재단을 통해서는 어려운 교도 가정 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교화 및 교육 사업 부문에 대한 계획은 무엇인지요?

♣ 먼저 총지종은 스승, 종무원, 교도자녀, 및 불자들에게 도재 양성 교육의 기회를 확대 할 예정입니다. 또한 스승, 예비스승, 간부 교도들 및 일반 교도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강연을 지속 적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특히 현재 건설 진행 중인 괴산 수련원 중원사는 기도 정진 전문도량으로 안거제도 도입, 묵언 등 용맹정진의 수행 종풍을 확립하겠습니다. 현재 총지종 스승들은 매월 1주간 사원에서 정진하며, 상. 하반기 2회 49일 정진을 매년 봉행 중입니다. 이러한 기존의 수행법을 감안하여 단기간 정진하는 안거를 실시 수행력을 집중적으로 증진 할 예정입니다.

총지종 하면 무엇보다 통일음악예술제가 생각나는 데요, 올해 문화 사업 부문은 어떤지요?

♣ 총지종은 지난 총기 40년부터 통일음악예술제를 개최해 왔습니다. 지난해에는 용산 국립중앙박물관 극장 '용'에서 제3회 공연을 했습니다.

올해는 부산에서 개최 할 예정이며 음악을 통한 세계의 평화와 공생 공존에 기여하는 평화의 메시지를 담은 음악제는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어린이 · 청소년 부문의 사업은 무엇인지요?

♣ 이미 지난해에는 청소년 인성향상 캠프와 '참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을 실시해 많은 호응을 받은 바 있습니다. 올 해도 건전한 불자 청소년 및 어린이 양성을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행사를 열 계획입니다. 또한 부산에서 운영 중인 '바라밀 지역 아동 센터'를 적극 지원하고 지역 주민을 위한 복지와 상생의 프로그램을 개발 하겠습니다.

종합힐링센터는 새로운 분야인 것 같은데요, 계획과 운영은 어떻게 이루어 지는 지요?

♣ 총지종은 역삼동 총지불교문화센타에 '종합힐링센타'를 올 해 개설 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실무진들이 지금도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불교의 명상과 수행법을 통해 피곤하고 지친 현대인들에게 마음의 힐링을 찾아주는 새로운 장을 열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서울에서 먼저 시범 운영을 한 후 결과를 연구 보완하여 전국으로 확대 할 예정입니다.

총기43년 새해불공 원만 회향

새해불공의 공덕으로 모든 서원 사항 원만 성취하시기를..

총기43년 새해불공이 총지사를 비롯한 전국의 서원당에서 1월 6일 오전 10시부터 13일 새벽 4시까지 7박 8일 간의 일정을 원만히 회향했다.

새해불공은 한해의 살림불공으로 새해를 비로자나 부처님의 가지력으로 모든 교도들이 종단의 발전과 국가의 안녕, 개인의 서원을 이루고자 용맹 정진하는 불사다.

법등 통리원장은 총지사 새해불공 회향 법회에서 설법을 통해 "그래도 인생은 살아볼 만 한것입니다. 모두가 정진과 보시를 통해 평안한 한해가 되기를 서원합니다"며 갑오년 새해불공의 원만한 회향과 교도들의 소구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서원했다.

총지종의 전통 수행 정진법인 새해불공은 원정 대성사가 입교개종과 함께 시행한 정통 수행으로 해마다 새해 첫 주에 시행된다.

개정 『49재 천도 불사법요』 독송 순회교육

장례식장 추선불사의궤 시범 교육



▲ 통리원 반야실에서 열린 습의교육

총기42년 춘계강공에서 발표 개정된 『49재 천도 불사법요』 독송 습의 순회교육이 실시되었다. 서울 · 경인 교구와 충청 · 전라교구는 1월 23일 통리원에서 부산 · 경남교구와 대구 · 경북교구는 1월 24일 부산 정각사에서 현직 주교를 대상으로 열렸다.

이번 교육은 밀교연구소장 법경정사가 강사로 나서 분향소에서 행하는 추선불공의 염불을 실수(實修)위주의 강의를 했다.

특히 의산작법에 기초한 염불 독송 발성법 시범을 보이고 강의 했다. 이번 의궤에서는 밀교 법구의 하나인 경쇠 사용법을 선보여 많은 관심을 보였다.

이번 교육을 주관한 밀교연구소장 법경 정사는 "이번 교육을 통해 개정된 상장례에 관한 통일된 의궤를 보급함으로써 정통 밀교 종단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며 통일된 의궤 보급 의의를 전했다.

이번 교육의 장.단점을 보완한 후, 스승용 CD와 테이프로 제작 다가올 강공에 보급하기로했다.

또한 종단 전 스승을 대상으로 한 제2차 습의 교육과 매년 개최되는 춘,추계 강공을 통해 지속적인 교육을 진행 할 예정이다.

총지종 교도자녀 명문대 합격 이어져

서울 · 경인 신정회 김은숙 지회장 손녀 이화여대 합격

총지종 교도 자녀들의 명문대 합격이 줄을 잇고 있다. 총지사 교도자녀들 뿐만이 아니라 전국사원에서 올해 입시를 맞은 교도자녀들이 서원했던 대학에 차례로 합격하고 있다.

특히 총지사 김은숙 회장의 손녀인 조여은 양은 이화여자대학교 미술대학에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합격해 비로자나 부처님의 가지를 받았다. 평소 하루도 빠지지 않고 불공을 이어온 김은숙회장은 모든 것이 진언불공의 덕으로 함께 동참 발원해 주신 스승님과 교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렸다.

총지종에서 매일 이어지는 동참불공은 다른 이를 위한 발원 기도로 우주법계의 법주이신 비로자나 부처님과 준제관음보살의 가지력을 받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 자식을 위한 지극한 발원은 오늘도 전국의 사원에서 끊없이 이어지고 있다.

장엄한 불보살님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일체제법의 본질을 원만하게 성취한 불보살님의 장엄도량을 사진으로 나타낸 만다라를 가정내에 모시고 수행정진의 지표로 삼으실 수 있는 인연을 맺으십시오.

● 전화문의 _ 불교총지종 통리원 02) 552-1080
각 사찰 주교님께 문의하셔도 구입가능합니다.

● 계좌번호 _ 우리은행 1005-480-047811
(재) 불교총지종 유지재단

1. 만다라 세트 (금강계 만다라 +태장경 만다라)
33cm X 33cm (액자포함)
30,000원



금강계 만다라 _ 金剛界曼荼羅

밀교 양계만다라의 하나로 서만다라고도 하는 이 만다라는 '금강정경'에 근거해 그려졌다. 중생의 부처의 경지 즉, 깨달음에 이르는 과정과 동시에 부처님께서 중생을 교화하는 활동을 단계적으로 나타낸것이다.

+



태장경 만다라 _ 服藏界曼荼羅

밀교 양계만다라의 하나로 정확하게는 '대비 태장생 만다라'이다. 대일경에 근거해 그려진 이 만다라는 태아가 모태 속에서 생육되어 가는 것에 비유해 대일여래의 보리심이 모든 생성의 가능성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2. 가정다라니
46cm X 27cm (액자포함)
27,000원



가정다라니

“그래도 행복한 한해가 되기를 서원합니다”



법 등
통리원장 / 총지사 주교

희망으로 가득한 새해를 맞으며

오늘은 갑오년 새해불공 회향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일까?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은 무엇일까? 돈일까? 재물일까? 권력일까? 여러 가지 생각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부처님의 말씀에 따르면 '일체가 마음이 정하는 것이다. 우리 인생도 마음이 정한 것이요. 내 삶도 내 마음이 만드는 것이다.' 이것을 두고 우리는 일체유심조의 법문이라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몇 단계 해석을 해서 모든 것은 “마음먹기 나름이다”고 표현을 합니다.

본래 부처님께서 우리 인간의 마음을 강조하시고, 마음법을 설 하실 때 '일체의 법은 심조(心造)라 즉 마음이 짓는 것이다.'라 말씀하시고 강조하신 것은 “사람이 선한 마음을 먹고, 선한 행을 닦고, 선한 업을 쌓고 그리고 큰 서원을 하고 마음에 큰 지혜를 열어서 살게 되면 마음속에 바라는 바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위 없는 깨달음을 성취 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일체 유심조의 의미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 하면 사람이 선한 마음을 먹는다는 것이 인(因)이 되고 마음에 바라는 바를 이루고 더 나아가 깨달음을 성취 한다 것은 과(果)입니다. 이것은 선한마음이 짓는 것이다. 선한 업을 닦고, 마음에 큰 지혜를 열어 살아가면 마음속에 바라는 바가 성취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뜻과는 사뭇 거리가 있습니다. 달리 해석하고 해석하면 그리 될 수도 있지요. 원래의 뜻은 선한 마음이 인(因)이 되어 우리 마음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는 뜻입니다. 수행으로 깨달음을 이룰 수 있다는 이 말씀을 두고 '일체유심조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법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특히 불교에서는 법(法)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법이란 바로 일체법이고, 법이란 곧 마음이 짓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것은 색법을 말합니다. 색이라는 것은 물질법입니다. 이를 색법이라 말 합니다. 예를 들면 꽃이 한 쌍 있다. 그 꽃은 색법이지요. 그리고 객관적인 존재입니다. 내가 봐도 꽃이고, 누가 봐도 꽃입니다. 꽃인 줄 아는 사람은 누가 봐도 그것은 틀림없는 꽃입니다. 이게 색법이라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사물은 모두가 그대로 색법입니다. 모두가 객관화 된 것이지요.

두 번째는 심법이라는 것입니다. 앞의 색법에서는 꽃은 꽃이었죠. 예를 들어 여기 장미꽃 한 송이가 있습니다. 심법으로 들어오면 이 장미를 보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바로 객관에서 주관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꽃에 얽힌 개인의 감정은 다 다릅니다. 장미인 줄은 알지만 만약 과거에 장미가시에 찔린 사람은 장미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애인한테 장미 한 바구니를 받은 좋은 기억이 있는 사람은 그 기억이 장미를 보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동백 꽃 많이 피는 곳에서 자란 사람은, 장미는 동백보다 못하다 하고, 해당화가 많이 피는 고장에서 자란 사람은 해당화가 장미보다 못하다는 말을 합니다. 이렇게 한가지의 대상을 두고도 색법에서 심법으로 넘어가면 사람의 주관이 개입 되므로 하나의 대상이 여러 가지로 갈라집니다. 여기는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일수삼견(一水三見)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물 하나를 가지고 세 가지로 본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람은 물을 물로 봅니다. 바닷물도 있고, 강물도 있고, 마시는 물도 있고, 그냥 물은 물입니다. 그러나 지옥 중생들이 물을 보면 고름으로 보입니다. 하늘의 천인들은 물이 유리처럼 보인다 합니다. 이런 한 가지 물을 보고 세 가지 입장이 나왔습니다. 하나의 대상을 보고도 자신의 입장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이를 주관이라 합니다. 그래서 주관으로 들어가면 골치가 아픕니다.

저마다 주관이 다르므로 만나면 부딪치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가장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색법이 아니라 심법입니다. 부부가 되어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면서 색법으로 싸우기보다 심법으로 싸우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심법으로 다투는 경우는 엄청 많습니다. 이것을 이것이라 하고, 저것을 저것이라하면 부부간의 이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심법으로는 남편은 이것이 옳다, 아내는 저것이 옳다며 자기 주관이 들어가면서 싸움이 일어납니다. 돈 한 푼 안 생기는데도 목숨 걸고 싸웁니다. 이것이 심법입니다.

내가 옳다, 거르다 한다는 것이 바로 심조(心造)입니다. 내 마음이 만들어 낸 것입니다. 심법 속에서 일을 잘못하면 모든 것들이 잘 못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시기하는 모든 것은 바로 내 마음이 만든 것입니다. 내 마음을 돌리 면은 부딪칠 일이 없고 다툴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내 주관을 주장하면은 상대의 주관을 맞출 수 없어, 아무것도 나올 일 없는데도 대판 싸울 수가 있습니다. 일체유심조의 가장 적절한 효용은 이 심법에서 발휘 되는 것입니다. 견해와 견해가 부딪칠 때 일체유심조를 생각해야 합니다. 내 주관을 세우지 말아야 합니다. '꽃은 꽃일 뿐이지 해당화보다 못하다, 동백꽃보다 못하다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자기 주관에 따라 이래도 보이고 저래도 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심법에 있어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면 살아가는 것이 무난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법(理法) 있습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를 말 합니다. 인연법, 인과법 등을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이법은 일체유심조와는 달리 있는 그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인과법은 인과법대로 세상에 존재하고, 인연법은 인연법대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얘기 할때는 득체유심법으로 심법을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이법을 잘 이해 하시고 올 한 해도 바르게 수행정진하며 살아간다면, 좀 더 너그럽고, 풍요해 질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새해불공회향을 두고 한 말씀 덧 붙이자면은 우리의 인생은 그래도 살아갈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나는 아직 살아 숨 쉬는 중생으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해 잘 보내시기를 서원합니다. 성도합시다.

진리의 여울

고향에 돌아가 보니(歸故鄕)

멀리 고향을 떠나온지 사십년
돌아와 보니 어느새 머리에 눈이 가득하네
잡초에 묻힌 땅 어디에 집이 있었던지
오래된 무덤도 이끼에 덮히어 걷기도 쉽지 않네.
마음이 죽었는데 한이 어디에서 일어날 것인가?
피가 말라 눈물 또한 흐르지 못하네
지팡이 하나로 다시 구름따라 떠나려 하니
사람이 살면서 고향 찾은 것은 부끄러워라.

윤필암(潤筆菴)

깍아지른 푸른 언덕 길도 끊긴 듯
푸르름한 기운 속에 절의 모습 깨끗하구나.
물 위에 비치는 그림자 보니 깨끗함을 알겠고
산은 구름이 사라져야만 하늘을 볼 수가 있네
해를 가린들 어떠랴 무성한 녹음 그대로 두고
봄을 아끼는 마음에 시든 꽃도 쓸지 않네
앞으로 가는 길에 갈림길이 없으니
누구를 찾아 동쪽 서쪽 다일 필요 없다네

초의선사/한국전통사상전서 09

■ 교훈 : 신의・성실・정직
■ 교목 : 보리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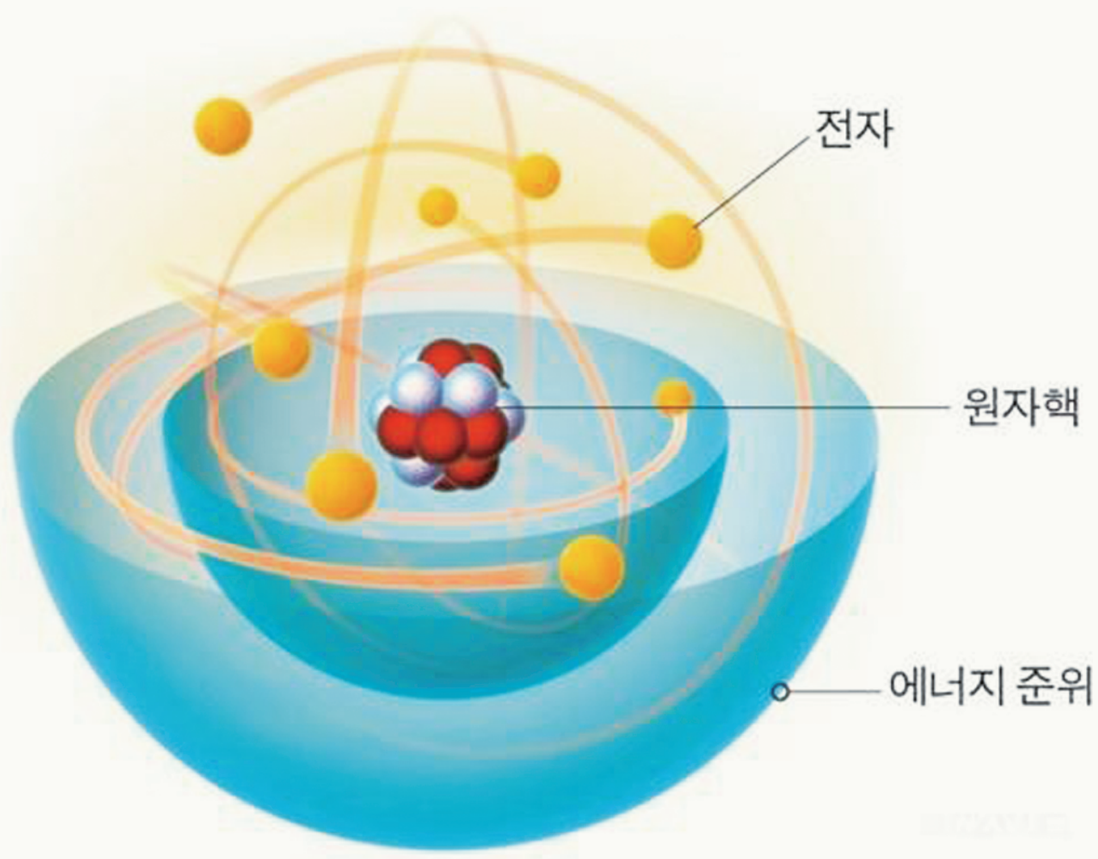
원대한 꿈을 갖고
실력을 연마하는
총지인!

나라의 희망이요, 꿈이요, 이상인 청소년을 위한 전통있는 역사의 터전!
총지종 종립 관음학사 동해중학교

총지종 종립 관음학사 동해중학교 부산시 동래구 명륜동 8-25 | 교무실 : 051-555-4458 | 행정실 : 051-556-0281 | 교장실 : 051-552-0011



힉스 입자의 발견
불교 공(空)사상의 확실한 증명



▲ 원자의 구조



▲ 힉스입자의 역할

색즉시공 공즉시색(色卽是空 空卽空色)은 불자라면 누구나 아는 이야기다. 현대물리학의 근본개념을 이미 부처님은 깨닫고, 이 공(空)사상을 기본으로 물질계의 현상과 정신계의 현상에 관한 해답을 제시했다.

2013년 10월 4일은 전 세계 물리학자들의 영원한 과제였던 물질의 기본 구성 요소 중 마지막 입자인 '힉스'의 존재를 규명했다고 CERN(유럽원자핵공동연구소)가 발표했다.

이는 우주의 생성이론인 빅뱅이론 발표 이후 현대물리학의 최대 과제였던 물질의 기본 구성요소로 원자핵을 구성하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고, 그 속에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쿼크라는 기본입자가 나온다. 이는 다시 물질구성 기본입자 12개와 이들 입자간의 힘의 매개를 담당하는 4개의 입자로 구성된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상호간의 작용을 일으키고 물질로서 질량을 부여하고 사라져버리는 힉스입자의 존재는 이론적으로 정리 되어 었지만 그 실체를 알 수는 없었다. 이 질량 부여 물질인 힉스를 발견해 낸 것이다.

물질을 구성하는 최소 단위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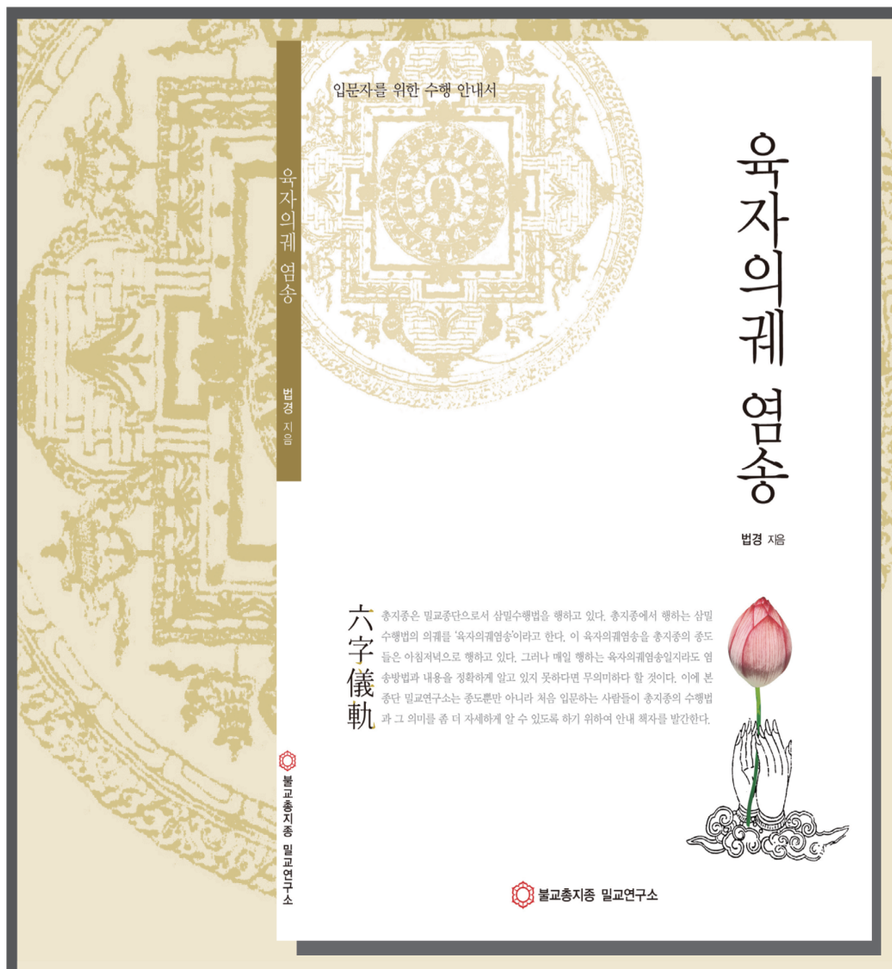
고전물리학에서의 물질의 구성요소를 파악한 역사를 한번 되짚어보자.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만물의 근원은 물, 불, 흙, 공기라는 4 원소설을 주장했다. 이후 데모크리토스는 물질은 원자와 공간으로 구성된다는 원자설(atomos)을 제기 한다. 이후 물리학의 연구는 서양의 기독교 사상에 의한 창조설에 갇혀 발전을 이루지 못하고 2,000여년의 세월이 흐른다. 1803년 드디어 돌턴이 원자설을 다시 들고 나온다. 물질의 입자들을 쪼개고 또 쪼개면 물질의 최소 단위가 원자가 된다는 이론을 확립한다. 1899년 기본 단위로 생각했던 원자를 '리퍼드'의 실험에 의해 원자는 원자핵을 중심으로 양성자와, 중성자의 싸이클로 둘러 싸여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다. 학자들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다는 원자핵을 나누는데 성공한다. 여기서 원자핵 속의 쿼크라는 최소 단위 물질 12개와 이들 물질의 작용에 관여하는 매개물질 4개가 밝혀진다. 그러나 이들 물질 만으로는 쿼크가 질량을 가지는 물질로서 역할을 할 수가 없었다. 다른 무엇인가가 4개의 힘 매개 물질사이에서 작용하고 사라지는 힉스라는 물질에 대한 가설을 세운다. 물질은 힉스의 도움 없이는 어떤 원자 간에 상호 연결된 상태로 존재 할 수 없다. 이는 우주 공간에서 쿼크 입자는 그 속도가 빛의 속도 움직여 형체라는 개념이 없다. 따라서 이 힉스 입자의 규명은 만물의 근원과 우주 탄생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힉스의 발견과 물질의 구성 원리

이 가상 입자 힉스를 예언한 것이 바로 힉스 교수다. 그는 1929년 영국 에딘버러에서 태어나 이론 물리학을 전공하고 대학에서 강사를 지낸다. 청년시절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영국과 일본 물리학자의 논문에 헛점을 발견하고 이의를 제기하지만 힘이 없어 묵살 당한다. 1964년 세계를 놀라게 한 대 발견인 힉스 입자를 증명하는 논문을 기고하지만 역시 묻힌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이 미립자의 세계를 학자들은 끈질기게 연구한 결과 17개의 표준 모형이 완성되었고, 16개의 쿼크입자를 찾았다. 하지만 마지막 힉스의 증명 없이는 물질의 탄생을 설명 할 방법 없었다.

이 마지막 입자를 찾기 위한 노력은 유럽원자핵연구소에서 1980년대에 구상되어 약 100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하여 1994년 그 공사에 착수 한다. 무려 14년에 걸친 대규모 공사다. 지하 100M, 둘레 27KM의 세계 최대의 강입자 가속기를 2008년 완성하고 6,500여명의 물리학자들이 상주하며 연구에 매진한 결과 드디어 2012년 7월 힉스입자를 99,999% 찾았다고 발표한다. 지금까지의 가설과 논문을 정리한 다음 2013년 10월 4일 완전하게 증명 된 논문을 발표한다.

강입자 가속기의 원리는 광속에 가까운 속도로(초속 약 30만Km) 반대방향으로 도는 양성자들을 충돌시켜 그 충격으로 이 전에 없던 입자들이 대량으로 발생하면 그것을 기록해서 힉스를 찾는 것이다. 원자 속의 원자핵, 원자핵 속의 양성자 중성자, 그 속의 쿼크, 쿼크에서 나눠진 17개 소립자 중 하나인 그 작은 물질을 찾기 위해 천문학적 돈을 투입하여, 우리나라 물리학자 60여명을 포함한 9,000여명의 물리학자가 많은 시간과 노력을 바쳤다.



초심자들에게는 '수행입문서'로,
모든 종도(宗徒)들에게는 '수행지침서'로 삼을 수 있는 총지종의 수행 총서(叢書)!

입문자를 위한 수행 안내서
육자의궤 염송

『육자의궤염송』으로 재난소멸과 소원성취를 이루고,
마음의 평온과 행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본 책자는 '육자의궤의 순서와 방법, 그 의미'와 함께
총지종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진언수행의 목적', '각종 진언의 공덕', '염주의 공덕', '사원에서의 예절',
'서원당 예절', '불공 예절' 등 수행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친절하게 싣고 있다.

법경 대정사 지음/ 밀교연구소장/ 법천사 주교
불교총지종 밀교연구소 발행/ 정가 10,000원 / 114쪽
* 구입문의 : (02) 552-1080~3

진공묘유(眞空妙有). '없다'라는 단순한 개념의 진공이 아니라 그 속에서 묘한(妙) 작용(有)이 있다는 것이다.



▲ 앙글레르 교수(좌)와 힉스교수(우)

힉스에 대한 발표가 있었던 자리에 '피터 힉스'교수가 초대되었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이런일이 일어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라는 소감을 말하고 눈물을 흘렸다.

2013년 10월 6일 노벨상위원회는 피터 힉스교수와 프랑수아 앙글레르 교수를 수상자로 발표한다. 앙글레르 교수는 벨기에 이론 물리학 전공자로 1964년 8월 브라우트와 함께 힉스 메커니즘 논문을 발표했다. 이후에 이것은 브라우트-앙글레르-힉스(BEH) 메커니즘이라 불린다. 1964년 8월 앙글레르가 힉스 메커니즘 논문을, 같은 해 10월 힉스가 힉스 입자 존재 논문을 쓴 것이다. 다시 한번 정의해 보면은 힉스가 질량을 부여 하는게 아니라 '힉스 메커니즘'이 질량을 부여한다고 봐야한다.

힉스입자의 불교적 해석

물질최소 단위인 소립자의 16개 입자가 질량을 가지고 원자 상호간에 작용을 하기위해서 힉스라는 소립자의 역할이 필요하다. 힉스가 없으면 물질이 없는 진공의 상태와 다름없다.

불교에서는 이를 진공묘유(眞空妙有)라 표현한다. '없다'라는 단순한 개념의 진공이 아니라 그 속에서 묘한(妙) 작용(有)이 있다는 것이다. 인류가 2,000여년을 연구하고 알아낸 현상계의 원리를 부처님은 이미 알고 계셨던 것이다. 여기서 12개의 물질을 색(色)이라는 개념으로 보고 힘매개



▲ 프랑스와 스위스 국경지대에 위치한 유럽 우주핵 연구소 강입자 가속기

인자인 4개의 입자는 업(業)이라 가정하자. 마지막으로 힉스입자를 인(因)이라는 개념으로 해석하면, 결과는 명료해진다. 인의 작용으로 업이 쌓이고 이것이 색의 입자들과 작용하여 과(果)라는 물질이 탄생하는 것이다. 이것이 이미 정해져있는 법계의 원리인 인과법의 원리로 것이다. 심조법(心造法)의 측면도 마찬가지다. 마음의 작용에서도 탐, 진, 치 라는 원인으로 짓게 되는 업식의 작용으로 결과를 받게 되는 것이다.

현대물리학은 그 베일을 벗겨내면 낼수록 부처님의 가르침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깨달아가고 있다.

기독교의 유일신, 창조론과는 정반대의 결과들이 나타난다. 요즈음 천체 물리학의 화두는 암흑물질을 찾아내는 것이다.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별과 별사이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의 빈 공간으로 보이지만, 이 속에 암흑 물질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 또한 명쾌하게 밝혀진다면, 부처님의 공(空)과 연기, 인연의 법칙은 과학적으로도 불변의 진리로 그 자리를 다시 매길 것이다. 알면 알수록 더 명료해 지는 부처님의 진리와 우주 법계를 울리는 진언 염송을 통해 진리의 세계로 더 나아가자.

김종열 기자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
일원 어린이집



· 맑고 밝은 어린이 · 자율적이며 더불어 함께 크는 어린이
·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어린이 · 이웃,나라,자연을 사랑하는 어린이

일원어린이집 : 강남구 광평로 3길 21 ☎ 02.495-3221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
강남구립초록어린이집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 강남구립초록어린이집 강남구 헌릉로 590길 63 리엔파크 5단지 아파트 관리동 1 층 문의. 02-445-2326

복고, 시간의 추억

수행 만큼은 철저히 옛날로 돌아가 용맹정진하자



얼마 전 한 케이블 방송에서 종영 한 드라마 "응답하라 1994"는 10대부터 50대까지 폭넓은 시청자를 확보하였다. 1994년 대학에 입학한 지방 학생들이 신촌의 한 하숙집에 모여 살면서 일어나는 우정과 사랑에 관한 젊은 신입생들이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재미있게 그린 드라마다. 물론 같은 방송국에서 제작한 "응답하라 1997"이 히트를 친 이유도 있었지만, 자연스러운 사투리 연기와 지역적 정서를 맛깔나게 연기한 배우들의 캐릭터가 인기의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설 연휴를 겨냥하고 개봉한 영화들 중에도 복고와 추억에 관한 작품이 하나있다. 코믹 멜로의 이름으로 나온 '수상한 그녀'다. 영화의 줄거리는 칠순 할머니가 스무살 처녀로 돌아가 일어나는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펼쳐진다. 유복자로 낳은 국립대 교수, 아들 자랑이 유일한 낙인 욕쟁이 칠순 할머니 오말순(나문희分)은 어느 날, 며느리가 쓰러져 병원에 입원한다. 며느리는 심장병을 앓는데 그 원인이 시어머니와의 갈등에서 빚어졌다고 가족들은 생각한다. 가족들이 자신을 요양원으로 보내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뒤숭숭한 마음을 안고 밤길을 방황하던 오말순 할머니는 오묘한 불빛에 이끌려 '청춘 사진관'으로 들어간다. 난생 처음 곱게 꽃단장을 하고 영정사진을 찍고 나오는 길, 그녀는 버스 차창 밖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란다. 자신이 젊은 시절 동경했던 '오드리 헵번'처럼 20살 처녀의 몸으로 돌아간 것이다.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자신의 젊은 모습에 그녀는 스무살 '오두리'가 되어 가수의 꿈에 다가간다. 그러나 자신의 몸과 꿈 보다는 자식과 손자의 목숨을 위해 다시 할머니의 모습으로 돌아간다.

요즈음 대세는 확실히 복고풍인 것은 맞다. 공연계에서도 80-90년대의 가요 리믹스를 무대에 올려 공전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먼저 마케팅적인 측면을 경제적으로 주요 활동 인구인 40-50대들의 향수를 자극하여 구매력을 최대한 높였다.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는 인터넷과 SNS의 발전으로 직접 만나서 하는 소통보다는, 가상의 공간을 통한 의사소통과 문화의 전달이 대중을 이루고 있다. 한마디로 인간적인 면을 잃어버린 것이다. 지나간 시절, 자신들의 옛 모습을 통해 본성을 찾고자하는 것이다.

불교계도 인터넷과 SNS의 열풍을 포교의 새로운 방편으로 활용하고 있다. 신행과는 관계없이 자신의 고민을 스님들의 SNS를 통해 불교적인 방법으로 해결책을 찾고 있다. 이는 불교의 문화적 저변 확대에 큰 기여를 한다. 좋은 현상이다. 그러나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너무 찰라의 순간에 지나가 버린다. 직접 만나서 차 한 잔 마시며 도란도란 자신의 고민을 들어주던 노스님의 모습이 더 오래 가슴속에는 더 오랜 시간 남아 있을 것이다.

오래전 열반에 드신 성철 스님이 생각난다. 스님을 친견하고자 하는 불자들에게 스님은 먼저 '삼천배' 기도를 성만하라 했다. 인생의 갈림길에서 해답을 구하고자 해인사 백련암으로 찾아온 불자들은 삼천배라는 육체적 절망에 다시 빠진다. 반은 돌아가고, 반은 삼천배 기도를 하지만 또 그중의 반은 수행을 성만하지 못하고 돌아간다. 길게는 하루 반나절을 걸려 삼천배를 성만한 불자들은 성철 스님을 만나기 전에 이미 자신의 고민에 대한 해답을 얻었다 한다. 그저 스님을 친견하면 삼배 올리고 고생했다 말 한마디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그들은 스스로의 자성에서 해답을 찾았고, 그 길을 가르쳐 준 성철스님을 평생 가슴 속에 품었다.

첨단 IT 기술의 발전은 인류에게 편리한 생활을 제공하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만남으로서의 정서는 점점 잊혀져가고, 인터넷 공간상의 내 모습을 현실로 착각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일어나고 있다.

수행 만큼은 복고로 돌아갔으면 한다.
자신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던지고, 치열한 용맹정진의 자세로
진언 염송을 통한 즉신성불의 대도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특히 수행만큼은 한다. 현재의 조계종단이 한국의 선불교를 대표하는 종단으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은 청담스님 등과 함께한 봉암사 결사(結社)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백척간두에 목숨을 내어놓고 치열한 용맹정진으로 선불교의 수행 풍토를 쇄신하고, 한국 불교의 위대한 스승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이제 수행 만큼은 복고로 돌아갔으면 한다. 자신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던지고, 치열한 용맹정진의 자세로 진언 염송을 통한 즉신성불의 대도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불공이 현실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면, 이제는 내 자신의 불성을 바로 깨닫고 나와 비로자나 부처님이 하나 되어 이 몸으로 성불을 이루어야 할 때이다. 올 한해는 청마의 기운이 수행가풍으로 끝없는 정진의 한해가 되기를 서원한다.

자유기고가 이희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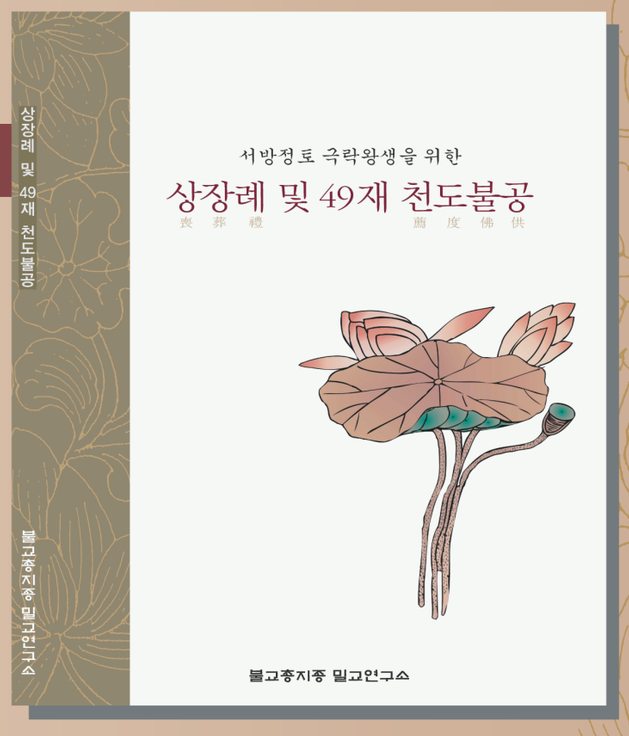
▲ 생전의 성철스님

왜 천도불공을 올려야 하는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상장례와 49재의 절차와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서 방 정 토 극 락 왕 생 을 위 한 천 도 불 공 안 내 서 !

서방정토 극락왕생을 위한
상장례 및 49재 천도불공

* 임종 시에 불공을 해드려야 하는 이유
* 재(齋)란 무엇인가?
* 49재의 의미, 유래와 근거
* 49재를 행하는 이유
* 49재는 어떻게 행하는가? (절차와 방법)



법공 종사 · 법경 대정사 共著
불교총지종 밀교연구소 발행/ 비매품/ 59쪽
구입문의 : (02) 552-1080~3

다시 읽는 우리시조

춘서(春書)

지은이: 만해 한용운 선사



▲ 천연기념물 쌍계사 매화

따슨 빛 등에 지고
유마경 읽노라니

가볍게 나는 꽃이
글자를 가린다.

구태여 꽃 밑 글자를
읽어 무상하리요.

만해 한용운 선사는 독립운동가이자, 불교 개혁 운동을 이끈 일제 강법기의 대선사입니다.

봄날 뜰에 앉아 '유마경'이라는 경전을 읽습니다. 책속에 진리는 봄날 햇살처럼 따스합니다. 그 따스함을 즐기는 순간 꽃잎 한 장이 책위로 떨어져 가립니다. 책을 그만 읽고 꽃잎을 감상합니다. 책 속의 진리는 꽃잎의 진실을 찾기 위한 방편이었습니다. 진리를 그대로 바로보는 마음의 눈을 키워야 겠습니다.

편집·정리 = 편집위원회

유물로보는 비로자나불

보물 제433호 괴산 각연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槐山 覺淵寺 石造毘盧遮那佛坐像)

소 재 지 : 충북 괴산군 칠성면 각연길 451, 각연사 (태성리)
시 대 : 통일신라



▲ 제433호 괴산 각연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불상이 앉아있는 대좌(臺座)와 몸 전체에서 나오는 빛을 형상화한 광배(光背)가 모두 갖춰진 완전한 형태의 불상으로, 진리의 세계를 두루 통솔한다는 의미를 지닌 비로자나불을 표현한 것이다.

머리에는 작은 소라 모양의 머리칼을 붙여 놓았으며, 그 위의 상투 모양 머리(육계)는 평퍼짐하여 구분하기 어렵다.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왼쪽 어깨에만 걸쳐 입은 옷에는 옷주름이 간략하게 표현되었는데, 특히 다리부분의 옷주름이 극단적으로 형식화되었다. 이런 표현은 얼굴모습과 함께 장곡사 철조비로자나불좌상(보물 제174호)과 직결되는 것이다. 왼손 검지를 오른손으로 감싸고 있는 손모양은 매우 어색한데, 이것은 왼쪽에만 걸쳐 입은 옷과 함께 불상의 오른쪽을 더욱 허술하게 만들고 있다.

불상의 광배는 머리광배와 몸광배를 구분하듯 가운데가 잘록하게 들어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물방울 모양이다. 광배를 살펴보면 불상의 머리 위쪽과 불상 양쪽으로 각각 3구의 작은 부처가 새겨져 있고, 안쪽에서부터 연꽃무늬와 구름무늬가 새겨졌으며, 가장자리에는 불꽃이 타오르는 모습을 표현하였다.

신라 전성기의 전형적인 불상처럼 긴장된 활력과 세련된 기교는 나타나지 않지만 전체적으로 단아하면서도 화려해진 모습을 보이는 통일신라 후기의 작품이다.

자료제공=문화재청

VISUAL 불교총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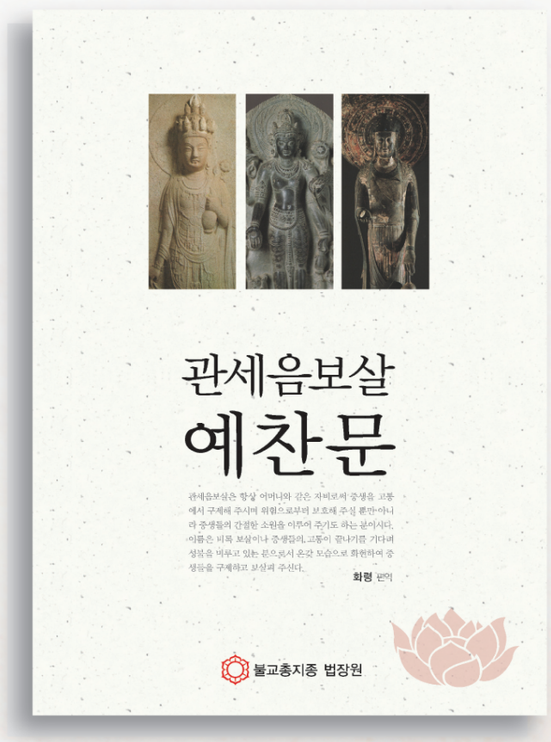
제56화

글/그림 정수일

http://www.drawing라훌라.kr



내용참조:불교총전 제5편 타인에 대한 덕의30. p590



이 책을 읽으면 관세음보살의 가피가 저절로!!!

관세음보살 예찬문

"대자대비 구고구난 관세음보살 온화하신 자비 광명 온누리 비추시네
무명 중생 괴로움 모두 살피사 빠짐없이 골고루 건져주시네"



- 관세음보살은 누구인가?
- 관음경
- 천수경
- 신묘장구대다라니해설
- 관세음보살 관련 각종 진언
- 옴마니반메훔의 의미와 수행법

화령 편역 | 불교총지종 법장원 발행
정가 15,000원 | 법보시가 8,000원 (10권 이상)

《관세음보살 예찬문》 법보시로 무량복덕 쌓으시기를...문의전화 02-552-1080